

# 노후산단 젊고 경쟁력 있게 재탄생

### 익산시, 근로자 기업 편의 개선... 기반시설 혁신 재생 추진

익산시 노후산업단지들이 젊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하고 있다. 근로자 기업 편의를 개선하고 도로와 노후 기반시설을 혁신적으로 재생해 입주기업의 만족도를 높이며 일하기 좋은 산업 단지로 변신하고 있다. 내년이면 50살이 되는 익산국가산단이 젊어지고 있다. 1974년 준공 이후 노후된 산단에 근로환경 개선과 도로 및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 시설들이 빠르게 확충된다.

우선 넉넉한 주차장이 다음 달 초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신흥동 231면, 어양동 144면 총

375면을 주차할 수 있어 근로자들과 입주 기업들의 편의성이 한층 더 좋아진다.

주차장이 완공되면 현장 접근성이 좋아져 도로정비 및 기반시설공사도 속도를 내 진행된다. 산단 진입 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하수관로 교체로 업체들의 입주환경과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보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준공 25년이 넘는 익산제2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이 본격 추진된다. 2021년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며 지난해부터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입주기업 대상 조업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체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구조 고도화와 복합용지 계획, 도로 정비와 회전교차로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대대적인 재생 사업이 국토부 타당성 검증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 예정이다.

한편 착공 후 20년이 지난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올해 사업비 총 2억원을 들여 낭산농공단지 내 주차장 조성 및 삼기농공단지에 소규모를 조성해 근로자 헛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22일 주한미군 제8의무전대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 군산시, 주한미군 제8의무전대 코로나19 대응 표창

군산시는 22일 주한미군 제8의무전대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그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 방지에 힘써준 주한미군들과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군산시장 표창은 주한미군 제8의무전대 공중보건소에 대한 기관표창과 주한미군 제8의무전대장 Rene Saenz 주한미군 제8의무전대 Kathryn Ellis, Tanviben Patel,

Roslyn Fuentes 군산교도소 김영규 교위 등 5명이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양국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군산시민은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글로벌대학30 성공적 추진 위한 다자간 협약 체결

### 군산대, 시 등 관내 30여 지·산·학·연 기관과

국립대학교 혁신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며 글로벌대학30 추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가 22일 군산시를 비롯한 관내 지산학연 30여 기관과 ‘글로벌30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2일 군산 리츠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협약에는 군산시, 군산시의회, 군장대학교, 호원대학교, (사)전북자동차포럼(제)자동차융합기술원, 건설기계부품원,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갯벌연구소,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군산대학교가족회협의회, 군산상공회의소, 군산원예농협, 글로벌자동차융합기술원, 미래형자동차상용차주행미니플러스터, 이퍼캠(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금형산업협

회, 전북자동차부품협회,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 특수목적선협회, 한국산업단지 전북지역본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 한국특장차협회 등 관내 30여 기관 지산학연이 참여했고, 참여기관들은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특화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대학30’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결과 참여 기관들은 지역사회에서 추진되는 사업 공동연구 수행 및 인력양성, 산학협력기관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및 소통체계 구축, 글로벌 수준의 대학-지역 동반 성장모델 구축, 지역 문화 및 생활 정주 여건 마련,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각종 산학협력 및 글로벌대학30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서 적극 협력하게 된다. 글로벌대학30은 교육부가 2027년까지

지 답대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는 비수도권대학 30개를 지정해 5년 동안 학교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 인력과 국내 외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장호 총장은 “군산대학교는 이미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학사구조, 외국 현지 기업에서의 재학생 현장실습 모델 구축 등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초석을 닦아왔다. 이제 관내 30개 이상 기관들과 힘을 합한 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라이제이션 혁신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역 인재를 세계 인재로, 세계 인재를 지역의 산업인재로 양성하는 생방향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토대로 우리 지역의 성장까지 견인할 수 있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여름철 재난 선제 대응할 것”

정현을 익산시장이 여름철 자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2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올 여름은 역대급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총력대응에 나서 달라”고 전했다.

특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 발생 시 매뉴얼대로 신속하

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여름철 재난 대응을 위해 15개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취약시설과 상습침수구역 등을 점검하는 등 분야별 예방대책을 추진해 왔다.

다불어 정 시장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개최되는 시의회 정례회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 등 많은 안건 심의가 예정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민들에게 시정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번 기회는 올해 추진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이다”며 “전 부서는 충분한 자료를 통한 소신있는 답변으로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국가산업단지·일반산단·농공산단 방역 실시

군산시가 다가오는 여름철 대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일원 방역소독과 하수도 준설작업을 실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장비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많은 양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우기철 공공시설물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전수조사해 상습 침수구간 14개소에 대해 하수와 협조로 지난 17일부터 준설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오는 9월까지 산업단지, 일반산단 4개의 농공단지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주2회 이상 하수관, 우수관 하천 주변 등 병해충 발생이 많은 곳과 이면도로, 공원 녹지구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읍면동 청사기능보강... 주민 편의 높여

익산시는 노후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반기 8억원을 투입하여 청사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

20 ~ 30년 지난 행정복지센터는 우기 빗물 누수에 취약하고 각종 내·외부 마감재 탈락 및 변색으로 시설물 개선이 필요하며,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함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시는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건축물(시설물) 내구연한, 건축물 누수정도, 시급성,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능보강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상반기는 남종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13개소 행정복지센터의 기능보강공사 등을 추진해 7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복지센터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